

# 인류의 번영 · 행복 보다 파멸 · 쇠락 주로 그려

## SF(Science Fiction)

영화의 선구자인 미국인 스탠리 큐브릭(1928~1999) 감독은 1968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인간의 대립을 처음으로 그려냈다.

극 중 목성 탐사선 '디스커버리호'의 운행과 시스템 통제를 맡은 컴퓨터 'HAL(HAL) 9000'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을 돕도록 설계된 '약弱' AI다. 그러나 자각을 통해 인간을 능가하는 지적 능력과 인간에 버금가는 감정을 가진 '강(強)' AI로 스스로 변모한다.

선장 '네이브 보우만(케어 폴리)' 등 승무원들은 뒤늦게 위기를 깨닫고 HAL을 리부트하려 하지만, HAL은 그보다 한발 앞서 반란을 일으켜 디스커버리호를 장악한다.

인류가 우주 개발에 나서고 안방 크기의 컴퓨터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시절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온 듯 한참 앞서 나갔던 큐브릭 감독의 상상력은 당시 대부분 사람에게 흥미로운 이야기 수준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사이 과학 기술 개발과 함께 조금씩 현실화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1984년 개봉한 '터미네이터'(감독 제임스 캐머런)가 1997년 강 AI '스카이넷'이 강대국 간 핵전쟁을 일으켜 인류 중 30억 명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리고 간신히 생존한 인류마저 노예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공개하자 전 세계인은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충격에 휩싸이고 만다.

이어 2016년 3월 한국의 천재기사 이세돌(33) 9단과 구글의 약 AI '알파고'의 다섯 차례 바둑 대결에서 AI의 가공할 위력을 맛보며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 인류는 흘러간 SF 영화들을 떠올리며 간신히 '희망'을 찾고 안도한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보우만 선장이 HAL을 파괴하는 데 마침내 성공하고,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2029년 '존 코너(크리스틴 베일, 2009년 터미네이터: 미래 전쟁의 시작)'를 중심으로 한 인류 저항군이 스카이넷과 맞서 끝내 승기를 잡아서가 아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터미네이터' 속 이야기는 앞서 1997년에도, 2001년에도 현재인 2016년 3월에도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SF 영화들이 인류에게 닥친다고 설정한 갖가지 비극적 상황들이 아직 영화적 상상력에 불과하다는 안도감 덕이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그간 SF영화에서 그린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현실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류에게 닥칠 예견된 비극을 막을 비책은 없는지 짚어보자.

### ▲ 할리우드 SF 영화들이 그린 미래, 현실은?

SF 영화에서 그리는 미래는 대체로 '유토피아(Utopia)'보다 '디스토피아(Dystopia)'에 가깝다.

영화 속 과학 문명 발전은 인간을 번영과 행복으로 이끌기보다 오히려 파멸과 쇠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매체 특성상 사회 비판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으나 유토피아보다 디스토피아가 훨씬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 앞선 대중매체인 소설 중 SF 분야에서 미래세계를 역시 디스토피아로 그린 것도 같은 이유라 볼 수 있다.

하구의 세계인 영화를 굳이 미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미터로 꼽는 것은 그 무한한 상상력이 인류 과학문명 발전을 선행했기 때문이다.

SF 영화의 선구자인 큐브릭 감독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AI를 인간을 공격하는 악역으로 설정했다.

극 중 목성 탐사선 '디스커버리호'의 운행과 시스템 통제를 맡은 HAL 9000은 자각을 통해 인간을 능가하는 지적 능력과 인간에 버금가는 감정을 갖게 된다. 이어 자신을 통제하려는 선장 '네이브 보우만(케어 폴리)' 등 승무원들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 디스커버리호를 장악한다.

AI라는 개념은 컴퓨터가 개발되던 20세기 초부터 존재했으나 극히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다. 개인용 컴퓨터(PC)가 나오기 훨씬 전이자 인터넷이 태동하던 때에 AI의 반란을 그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1984년 미국의 제임스 캐머런(62) 감독은 '터미네이터'에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속 AI 악역 캐릭터를 더욱 발전시켜 2029년 인류를 지배하는 절대 악 '스카이넷'을 탄생시켰다. 여기에 인류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갖게 된 '기계'에 대한 트라우마를 집목해 '사이보그(기계 인간)'를 그 하수인으로 내세웠다.

1997년 군사 컴퓨터 스카이넷은 강대국 간 핵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파멸 직전으로 몰고 간 뒤, 생존자들을 노예로 삼는다. 2029년 '존 코너(크리스틴 베일, 2009년 터미네이터: 미래 전쟁의 시작)'를 중심으로 봉기한 인류 저항군이 자신에게 맞서자 스카이넷은 존의 존재 자체를 없애기 위해 그의 어머니인 '사라 코너(린다 헤일턴)'를 제거하기로 하고 'T-800(아널드 슈워제너)'를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보낸다. 존 역시 사리를 지키기 위해 전자 카일 리스(마이클 빈)를 역시 같은 곳으로 급파한다.

당시는 PC가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했으나 인터넷은 민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로 대중은 AI라는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했다. 로봇 또한 소설, 만화, 민화영화, 영화 등 SF물이나 등장하던 때였다.

T-800을 미래에서 과거로 보낸 '타임머신'은 영화가 개봉하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꿈도 꾸지 못하는 아이템이다. 결국 타임머신은 AI가 현실화한 뒤에야 비로소 넘볼 수 있는 신의 영역인지도 모른다.

### ▲ 사이보그

SF에서 외계인('슈퍼맨'이나 초능력자('스파이더맨', '원더우먼') 등에 국한했던 '슈퍼 히어로'를 과학 문명을 바탕으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작품도 나왔다. 1987년 폴 버호벤(78) 감독이 선보인 '로보캅'이다.

머지 않은 미래, 미국 디트로이트의 경찰관 '피퍼(피터 웰러)'는 순찰 중 악명 높은 범죄자 '클라렌스(케트워드 스미스)' 일당에게 무참히 살해당한다. 방위산업체 OCP 과



스페이스 오디세이



인셉션



터미네이터



투탈리콜

‘유토피아(Utopia)’보다 ‘디스토피아(Dystopia)’에 가까워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AI를 인간 공격 악역 설정

‘토탈리콜’은 인간의 뇌에 프로그램 기억 주입해 이야기 전개

학자들은 죽어간 머피를 극비리에 최첨단 사이보그 '로보캅'으로 재탄생시킨다. 과학자들은 머피의 뇌에 프로그램을 입력해 기억을 지웠으나 머피로서의 기억이 극소량 남아있던 로보캅은 우연히 자신의 정체와 시연을 깨닫게 되고, 클라렌스와 배후의 거액 '닉 존스(로니 콕스) 증정'에 나선다.

죽어가는 사람을 되살려 사이보그로 만드는 것, 뇌에 프로그램을 입력해 기억을 지우는 것 등 논란의 소지가 있던 2084년 신도시에서 공사장 인부로 일하는 '케이 드'는 미모의 아내 '로리'와 행복하게 살지만, 밤마다 화성과 관련한 이상한 꿈을 꾸다. 그러던 중 그는 인위

적으로 기억을 주입해 마치 실제 경험한 것 같은 효과를 내는 회사 리콜을 찾아 화성에 관한 기억을 주입받는다. 그런데 케이 드에게 부작용을 일어난다. 바로 이미 기억이 조작된 사람이 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케이 드는 이를 통해 자신이 실은 지구의 식민지 화성의 독재자 '코하젠(로니 콕스)'의 부하였으나 반란을 일으켰다 실패한 뒤, 기억을 조작당한 채 로리 등의 감시 속에서 지구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로리 등의 추적을 피해 화성으로 가 코하젠에게 복수하려 한다.

기억 조작은 크리스토퍼 놀란(46) 감독이 2010년 연출한 리어니도 디캐프리오의 '인셉션'을 통해 더욱 확장됐을 정도로 SF영화에서 사랑받는 소재다.

하지만 현실에서 넘어야 할 산이 수도무하다. 필연적으로 갖기 마련인 윤리적인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2013년 매사추세츠 공대(MIT) 신경과학 연구팀이 광유전학 기술로 쥐의 개별적인 뉴런을 조작해 '거짓 기억'을 입히는 실험에 성공한 것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아직도 갈 길이 먼 분야이기 때문이다.

/인진수 기자

### ▲ 기억 조작

'로보캅'에서 인간의 뇌에 프로그램한 기억을 주입하는 이야기를 전개했던 버호벤 감독은 1990년 '토탈 리콜'에서 이 부분을 더욱 강화했다.

서기 2084년 신도시에서 공사장 인부로 일하는 '케이 드'는 미모의 아내 '로리'와 행복하게 살지만, 밤마다 화성과 관련한 이상한 꿈을 꾸다. 그러던 중 그는 인위

## 제18회 완주 삼례 딸기 대축제

2016. 3. 25(금)~27(일) 3일간 삼례문화예술촌

### 완주삼례딸기는 이렇게 재배합니다

그러므로 완주삼례딸기 안전한 친환경식품입니다.

- 딸기를 먹을 때 소비자는 농약사용을 제일 먼저 살펴보십시오. 딸기는 잘 씻을 수도, 깎아먹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완주삼례딸기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꽃벌이 꽃가루 수정을 하여 딸기를 만들어 줍니다.
- 완주 삼례딸기는 고급 유기물과 깨끗한 지하수로 재배합니다. 재배농가가 직접 딸기를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을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연번	3월 25일(금) 행사일정안내	연번	3월 26일(토) 행사일정안내	연번	3월 27일(일) 행사일정안내
1	13:00-14:00 ● 품바각설이 2인조 공연	1	09:00-10:00 ● 행사준비 및 사전 리허설	1	09:00-10:00 ● 행사준비 및 사전 리허설
2	14:00-15:00 ● 완주군 문화의집 공연	2	10:00-12:30 ● 완주삼례딸기 품평회	2	10:00-12:00 ● 완주삼례딸기 품평회
3	15:00-15:30 ● 완주삼례딸기 OX문제	3	12:30-13:30 ● 김놀이 공연(삼례문화재단)	3	12:00-12:30 ● 완주삼례딸기 민속물림
4	15:30-17:00 ● 완주군 평생학습 한마당 공연	4	13:30-14:00 ● 식전축하공연(삼례초등학교)	4	12:30-13:30 ● 완주삼례딸기 민속물림
5	17:00-17:30 ● 완주삼례딸기 발리악기대회	5	14:00-14:40 ● 개막식	5	13:30-14:00 ● 완주삼례딸기 축적 경매
6	17:30-18:00 ● 완주삼례딸기 발리악기대회	6	14:40-16:00 ● 청소년가요제 및 댄스경연대회	6	14:00-14:30 ● 품바 각설이 공연
7	17:30-18:00 ● 완주삼례딸기 발리악기대회	7	16:00-17:00 ●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7	14:30-16:30 ● 전주MBC 라디오 공개방송
8	17:30-18:00 ● 완주삼례딸기 발리악기대회	8	17:00-17:30 ● 품바 각설이 공연	8	16:30-17:00 ● 품바 각설이 공연
9	18:00-20:00 ● 각설이와 함께 하는 흥겨운 한마당	9	17:30-18:00 ● 완주삼례딸기 발리악기대회	9	17:00-17:30 ● 완주삼례딸기 발리악기대회
		10	18:00-18:30 ● 완주삼례딸기 축적 경매	10	17:30-18:00 ● 저금리 공연
		11	18:30-20:00 ● 딸기요제 예산 실시(본선진출자 12팀 선정)	11	18:00-18:30 ● 행운권 추첨
		12	20:00-20:10 ● 완주군민 대화할 불꽃놀이	12	18:00-18:30 ● 행운권 추첨
		13	20:10-20:50 ● 품바 각설이 공연	13	18:00-18:30 ● 폐회식
		14	20:50-21:00 ● 행운권 추첨		

주최 완주군 행사문의 063)291-2711